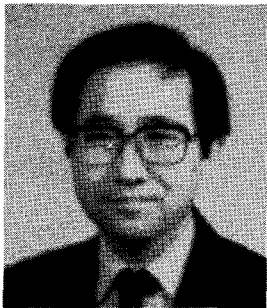


의학적 시각에서 본 민간요법의 문제점



김광원

(경희 의료원 · 내과)

만성질환은 수십년을 두고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 일생동안 함께 해야되기 때문에 매우 괴로운 질환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신속하게 똑 떨어지는 「單方藥」을 찾는 것이 무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당뇨병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환중의 하나이다.

당뇨병치료를 말하기 전에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서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인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뇨병치료에 임하는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신호한 단방약은 따로이 없어

성인에서 생기는 1형당뇨병의 원인은



당뇨병 발병원인의
본체는 핏속의 포도당을
적정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인슐린
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슐린의
양을 증가하게 하는 치료법이 당뇨병 치료의 중심이
된다. 체내에 인슐린이 없이는 절대로
당뇨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환자들의 무절제한 생활습성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불규칙적인 식사, 무절제한 음식섭취, 과다한 욕심에서 생기는 정신적 갈등이 계속 쌓이게 되면 당뇨병이 생긴다.

따라서 치료의 첫단계는 생활의 평정이다. 심신의 안정이 없이는 당뇨병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규칙적인 식사, 하루의 활동량에 알맞은 균형된 식사량, 이성적인 판단과 무리없는 생활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당뇨병의 반이상은 치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뇨병치료에서 가장 강조되고, 필수적인 것이 음식섭취와 하루활동량을 포함한 생활습성이다. 올바른 생활습성을 가지지 못한 당뇨병환자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효과가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신호한 단방약(單方藥)만을 찾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당뇨병 발병원인의 본체는 핏속의 포도당을 적정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인슐린의 결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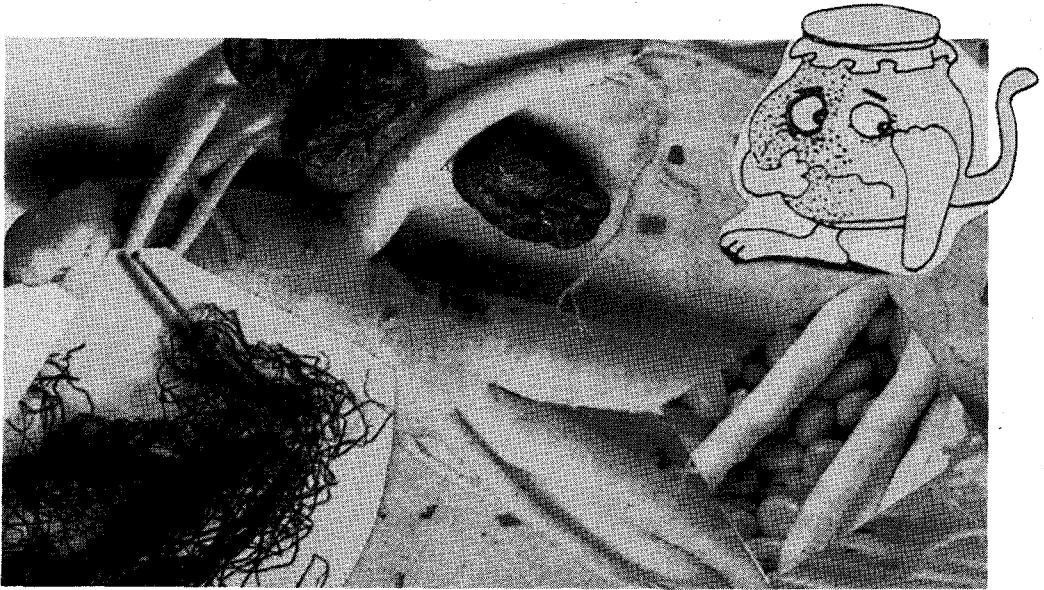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슐린의 양을 증가하게 하는 치료법이 당뇨병치료의 중심이 된다.

체내에 인슐린이 없이는 절대로 당뇨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을 수술하면 당뇨병이 생긴다. 이때에는 체내에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치료를 해야지만 된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인슐린의존성 1형당뇨병에서는 인슐린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인슐린을 써야한다. 이러한 환자에서 민간요법은 안된다. 민간요법에 인슐린이 포함되었다면 별문제이지만.

인슐린 결핍해결이 열쇠

성인에서 생기는 인슐린비의존성 2형당뇨병에서는 충분한 양의 인슐린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능력을 복돋아주는 치료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구혈당강하제는 췌장도세포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구혈당강하제는 작용하는 작용시간에 따라 장기지속성과 단기속효성으로 나눈다. 환자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한다.

또한 여러종류의 경구혈당강하제는 배설하는 경로가 다르다. 간을 통하여 대변으로 배설되는 종류도 있고, 신장을 통하여 배설되는 종류도 있다. 또한 경구혈당강하제의 부작용도 잘 알고있다.

일부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중에 음주를 하면 심한 부작용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다른약과 함께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면 저혈당효과가 너무 강하여 함께 복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개발되었던 일부 경구혈당강하제

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판매가 금지된 약들도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구혈당강하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치료약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학적인 분석, 규명이 선행돼야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중에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선 저혈당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증명되지 않은 경험적이고 추상적인 결론은 결코 과학(科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혈당강하효과가 인정된다면 혈당강하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분석이 있어야한다. 성분분석이 끝나면, 그러한 성분이 신체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혈당을 떨어뜨리는가에 대한 기전을 규명해야 한다.

· 임상적으로 또하나 매우 중요한 일은 약

물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에 개발되었던 많은 혈당강하제들도 혈당을 낮추는 뚜렷한 효과가 인정되었지만, 부작용때문에 더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된 약물들이 많다.

현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도 혈당강하효과가 뚜렷해도, 당뇨치료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뿐이지, 당뇨치료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술의 주성분인 에칠알콜도 뚜렷한 혈당강하효과가 있지만, 결코 당뇨치료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슐린이 아닌 혈당강하제는 이것들이 환자들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혈당강하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혈당강하효과가 일정해야 한다. 혈당강하효과만 있다고 하여 약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예상으로 강력하여 고도의 저혈당이 생기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때는 효과가 강력하다가 어느때는 효과가 약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울 수 없어도 안된다.

생약제들 중에는 채취방법, 채취시기, 또는 건조처리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중요한것은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부작용이 없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러한 약물은 세상에 없다.

부작용의 정도 및 종류에 따라 약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한다.

철저한 분석과 객관성이 없는 약제는 사이비

“

이것들이 환자들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혈당강하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혈당강하효과가 일정해야 한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당뇨병치료약들은 꾸준한 노력과 연구로 많은 단점들이 보강되면서 이상적인 치료제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꾸준한 노력과 연구속에는 철저한 분석과 객관성이 있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치료는 아직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 새로운 치료법에 대하여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도의 일환으로 민간요법의 의미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나 치료제로 사용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할 조건들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않은 치료행위는 득보다는 해를 자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으로 합당하지 않을 때는 독극물(毒極物)로 맹물이나 밀가루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㉞